+

道교육청,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내실화 주력

고교학점제 따른 학점 취득 졸업 요건 '예방 보충' 중심 학습 지원 체계 강화 EBS·보충과제등활용학습결손해소

전남도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예방 보충' 중심의 학습 지원 체계 를 강화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 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 40% 또는 출 석률 미달 시 보충학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 록 돕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학기 초 미도달 예상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진단평가와 교과교사 추 천 등을 통해 학생을 선정, 방과후 지도, 기초학 력 프로그램, 교과 시간 내 보충지도, AI 디지털 교과서활용등다층적학습지원프로그램을제

학기 말에는 과목별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지원한다.

방과후 또는 방학 기간에 온라인 콘텐츠(EB S), 학습 멘토링, 보충 과제 등 다양한 학습 경로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 결손의 원인 중 정서·심리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 예방·보충 지도 과정에 정서 지원 프로 그램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보성에서 고등학교 최소 성 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담당자 145명을 대상으 로 정책 지원 현장 안착을 위해 연수를 실시했

연수에서는 ▲ 고교학점제 기반에서의 예방・ 보충 지도 실천 전략 ▲ 정서·심리지원 프로그 램 ▲ 학교 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 ▲ 2026학년 도 정책 변화 및 전남교육청 운영 방향 안내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지원 전략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최소 성취수준 보 장지도가 힘들게 느껴졌는데 다른 학교 운영 사 례와 구체적 절차를 배우며 자신감을 갖게 됐 다"고소감을 전했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전남도교육청은 학 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예방 중심 의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의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동신대학교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와 함평군 엄다면은 최근 천지농협 회의실에서 '온마을GUARD 리빙 랩' 웰에이징 통합케어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신대학교 제공〉

동신대, 리빙랩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강화

RISE사업단-함평 엄다면 업무협약 돌봄 모델 제도화·디지털 격차 해소

동신대가 지역 주민 중심 문제 해결 모델인 리빙랩(생활 실험실)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강

24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RISE사업단 시군 동반성장협업센터는 최근 함평군 엄다면 천지 농협에서 대학·지자체·지역기업·주민이 함께 하는 지산학(地産學) 협력 모델인 '온마을GU ARD 리빙랩' 지속돌봄 웰에이징 케어 프로그 램을 운영했다.

차, 의료복지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 해 마련된 현장 중심형 리빙랩으로, 교수·학생·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으로는 ▲생명 지킴이 CPR 교실 ▲ 인지장애·치매 예방 운동교육 ▲방문 운동재활 센터 ▲디지털 영상 캠페인 ▲디지털 접근성 개 선 교육 ▲치아튼튼 마음튼튼 등이 운영돼 지역 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 동신대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와 엄다면은 온마을GU ARD 리빙랩 웰에이징 통합케어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돌봄 모델 의 제도화, 디지털 격차 해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휘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장은 "앞으로 이번 리빙랩은 지역의 돌봄 공백과 디지털 격 도 지역 복지·건강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 고말했다. /박선옥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우산동 뉴빌리지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광주시교육청 제공〉

'통행 불편' 광주 송우초·광산중 통학로 생긴다

市교육청-광산구청 통학로 개선 MOU 인근 보도 확장·신설 등···안전문제 해결

광주 광산구 송우초등학교와 광산중학교의 통학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송우초교와 광산 중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부지 제공 및 활용 ▲행·재정적 협조 ▲공사 시행 및 유지관

리역할분담등을 협력한다.

송우초, 광산중 통학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12 월 광산구와 협력해 참여한 국토교통부 '뉴빌 리지' 사업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추

두 학교는 통학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학 생, 지역민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협 력해 광산중-송우초 남측 통학로 176m 구간의 보도 폭을 1m에서 2m로 확장하고 송우초 동편 114m(폭 2m) 구간에는 보도를 신설한다.

또 두 학교 주변 도로 일부는 안전문제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해 도막 포장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시교육청은 통학로 조성에 필 요한 학교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광산 구는 통학로의 조성·관리 역할을 맡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통학로 개선은 우리 아이 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광산구와 교육 청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며 "학생들의 안전 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광주시와 협력해 올해 말까 지 광주문화초등학교와 광주양산초등학교 통 학로에 폭 2m 규모의 보도와 안전펜스를 설치 하고 광주양산초에는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 로 활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조성한다.

/박선옥기자

전남대 여수캠퍼스 '석유화학 위기 돌파구' 모색

산·학·연 협력 교류회 개최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제언

전남대 여수캠퍼스 전남 RISE사업단이 에너 지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석유화학산업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2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여수캠퍼스 전남 RISE사업단은 최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K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전략 및 지역산업 혁 신 산학연 교류회'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전남대를 비롯해 순천대학 교, 한영대학교 교원과 산업계 인사, 참여기관 연구원, 관련학과 재학생 등 54명이 참석해 높 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여천NCC 김동호 부장 ▲㈜에스앤

엠 최태송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석 유화학산업의 현황과 기업별 기술 대응 전략,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최창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주지 봉 교수(건국대학교) ▲안광노 박사(한국화학 연구원) 등이 학계·연구계의 시각에서 지역 산 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생태 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제언을 제시하 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지훈 전남 RISE사업단장은 "이번 교류회 를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위 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성을 공 유한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 역 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 /박선옥기자



+